매일 삶의 출발점 베들레헴

(미가 5장 1절~15절)

1.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매일 삶의 출발점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매일 삶의 출발점 베들레헴'

지난 7월 15일에 재수를 하고 있던 아들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입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저는 입시에 매달리면서 재수를 할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결정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그 말을 직접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길 수도 있고 군대를 우선시함으로 인해 장래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아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에 대해 죽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병무청에서 상근예비역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상근예비역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 나머지 16개월간 군복을 입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상근예비역으로 신청을 하여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입소하고 2~3주가 지나고 상자 하나가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입소 때에 집에서 입고 갔던 옷과 소지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속옷까지도 돌려보냈습니다. 민간에 있을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군대에서는 필요도 없고 가지고 있어봐야 짐만 됩니다. 정말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훈련소에 있으면서도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포상전화였답니다. 사격 점수가 좋아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했더니 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은근히 아이가 군대체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요새는 수료식 때에도 부모님을 부릅니다. 갔더니 모습에서 기백이 느껴지는 것이 5주만에 딴 아이가 되어있었습니다. 훈련시킨 조교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는 민간인 신분 때에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는 실오라기 하나도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예전 이름입니다. 지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반복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이 구절에서 미가 선지자의 영적 천재성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부분입니다. 상고(上古)는 태초이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이 언급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안 계시다가 존재하게 되신 어떤 시점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안 계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언급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전 이름인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들레헴은 이런 이름과 판이한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다 나라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단위는 천 명 단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 명이 안 되는 촌락은 행정구역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작다는 말은 히브리어 '차이르'입니다. 차이르는 단순히 작다는 의미 외에도 천하다, 보잘 것 없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작고 초라한 촌락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인격이십니다. 그렇다면 초라한 베들레헴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격과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나마도 잘 사는 사람의 집이 아닌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 때에 윤리적인 덕목으로써의 겸손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용어가 과연 합당할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유대 나라 안에서도 가장 작은 촌락에서 태어나신 사건의 의

미를 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태여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으로 베들레헴을 택하셨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집트나 앗수르 같은 강대국의 궁전이 아닌 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과 하필이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심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안 계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또한 영원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없었으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의 영원함이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영원함인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식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발전된 도시의 후광을 결코 대단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영원하신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는 전혀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베들레헴과 말구유의 초라함을 근거로 겸손의 덕목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셨기에 예루살렘의 궁전의 호화로움이나 화려함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와 다를 바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증거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관 안에서 베들레헴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에서는 어디까지나 궁전이 마구간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을 좋다고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이 좋게 여겨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식의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베들레헴의 사건을 바라보았기에 그것은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으심을 추구하십니다. 좋음이 곧 기쁨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좋음의 기준 또한 피조세계의 시간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세계에 속한 대상들은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하다고 해서 다 좋아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대상의 기본 자격 조건이 영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다고 하심은 예수님을 좋아하심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의 회장님이 8억 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출근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900만 원짜리 경차가 생산되는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회장님이 쓰기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900만 원의 값어치를 잘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존재하게 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만한 대상으로써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라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궁궐이 베들레헴의 마구간보다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의 구유를 불편하게 여기시지도 않았으며 안 좋게 보시지도 않았고 안타깝게 여기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것들이 내일도 좋다고 여겨질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더라도 그 좋음이 1년이라도 지속될 수 있다면 기적입니다. 또 수중에 100억이 생겨서 기뻐하던 사람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생긴 것으로 기뻐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돈을 써서 기뻐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쇼핑이 주는 기쁨에 목을 매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쇼핑도 별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갑질과 같은 악행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기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2~3일도 채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언급 된 베들레헴은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아까워하거나 억울해 하거나 아쉽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내신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폭로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목매고 침 흘리며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좋은 것이 없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그 상태를 더 좋게 해줄 수 있을만한 이 세상의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계속됩니다. 야곱의 자손은 혈육 상 선택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면, 그 중에서 남은 자는 진정한 선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원하심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에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하심은 결코 우리의 속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영원함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피조물로써의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하심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베들레헴을 출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해 믿음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영원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5절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참여한다는 것은 곧 평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절의 하반부를 보면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유다는 실제 역사 속에서 앗수르를 이렇게 무찔러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하게 되면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평강을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강을 깨는 첫 번째 요인은 앗수르의 강대함이었습니다. 앗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은 불안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앗수르 왕과 똑같은 힘을 가진 여덟 군왕이 힘을 합쳐 앗수르를 무찌른다 하였습니다. 또 일곱 목자가 언급되는데 일곱은 완전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미가 선지자는 일곱 목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앗수르와 같이 내 마음에 평강을 깨뜨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모든 요인들이 앗수르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영원하심에 참여하게 될 때에 평강이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앗수르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 일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문제이거나 취직이나 승진과 같은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깨는 모든 문제가 앗수르인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게 되면 이 평강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일곱 목자가 지키고 여덟 군왕이 타파하는 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의 영원함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장중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드러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세속적 가치가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이야 말로 삶을 출발하기에 가장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요인도 깰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 이 평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함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연합의 상태가 중단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또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슬과 단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출발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될지언정 어떤 기쁨과 만족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상사를 만날 때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잘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영원함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좋다고 여겨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나의 행동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지만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하게 충성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충성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장악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보디발에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더라도 사자 같은 당당함으로 실직이라는 사건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존경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겸손해 보이는 것은 비굴함과 처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이러한 당당함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 관점에서 하찮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도 당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좁쌀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하등의 불편함과 모자람을 느끼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증거는 오늘 밤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심리적 확신이 아닙니다. 앗수르와 같은 대적을 마주하고도 깨지지 않는 평강을 가진 것이 증거가 됩니다. 또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단비가 되어주는 상태가 되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또 내 생각과 행동이 그 누구에게도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사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영원함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증거들이 나타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족과 나의 모습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날마다 복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원함에 참여하게 되고 결코 깨지지 않는 평강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그 누구에게도 기쁨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좌우되지 않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삶의 출발점이고 영적인 호적이 됩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미가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 삶의 출발점을 베들레헴으로 잡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깨지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